

# 살아있는 가금류 25일까지 '유통 금지'

### 농식품부,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등 경영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검토

고병원성 AI가 소규모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까지 전국 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10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한 바 있으며 25일 이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가금 판매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닭, 오리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부화장, 가금류 가공장, 가축거래상인 등에도 경영안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경영 손실액에 대해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이 자금은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내역 관리 대상 작성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 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기로 했다. 동시에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일제 단속도 실시한

다.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확대돼 12일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제주는 18일 이후에도 반출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 금지와 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AI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름철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는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24시 기준 6개 시도 11개 시군의 21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한편 11일 정부의 AI일일점검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산 가금농장이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록도 없고 기억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중간 유통상인을 통해 사들인 곳에서 AI가 발생해 주의를 기울일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한전 전북, 보훈가족 생필품·주거 환경 개선 활동 지원

한전 전북본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최근 전북동부보훈지청과 함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생필품 및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한전 전북본부 직원들이 600만원 상당의 리브랜드 상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쌀 200포와 참치, 라면 등 생필품을 구입,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전 전북본부 소속 16개 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 동부 서부 보훈지청에서 추천받은 보훈가족 213세대(동부 141세대, 서부 72세

대)를 대상으로, 생필품 전달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및 노후 전기 설비 점검 등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는 수혜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기 위해 6월 한달을 활동기간으로 정해 나눔 경영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국가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 덕분"이라며,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 풍토 조성과 보훈가족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6차산업 우수가공상품, 공영 홈쇼핑 통해 판매

#### 농촌진흥청, 농가경영체 상품 품평회 개최... 농가상품 인지도 향상 기대

우수한 6차산업 농가경영체가 만든 상품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6차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물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5일 분청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공영홈쇼핑 출시를 위한 농가경영체 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또한, 간편조리 건나물 3종(경기), 연잎밥(충남), 수미담 잡조청(경북), 아삼라떼(경남) 등 8종을 오는 7월부터 (주)공영홈쇼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품평회에는 농촌진흥청이 시장 거래(마케팅) 부문을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한 농가경영체의 상품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경영체의 상품 등 총 49종이 출품됐다.

출품된 상품들은 홈쇼핑 전문 MD(이하, 상품평가자)가 상품성, 창의 혁신성, 소비자 기호도 등 향

목별 평가를 한 뒤 높은 점수를 보인 상품 8종을 선정했다.

상품평가를 총괄 담당할 공영홈쇼핑 이강현 상품평가자는 "출품된 제품들은 농업인이 직접 재배, 생산한 상품이며, 각 지역적 특산물에 부합된 품질과 포장 디자인으로 상품 완성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 같다"고 평가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품평회는 농가경영체 상품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참가한 농가경영체의 상품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

이 됐다. 품평회에 참가한 농가경영체는 "전문 상품평가자에게 상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앞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농촌진흥청 정충섭 농촌지원과장은 "전국 6차산업 농가경영체의 브랜드 인지도도를 높이고 판로확대와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 거래(마케팅)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홈쇼핑에 출시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

###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 소재 재산 약 177억원 규모, 총 48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리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타근린생활시

설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단독주택,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공장용지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22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농협손해보험, 챌린저 전략회의 실시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지난 15일 농·축협 우수 직원(이하 챌린저) 40명과 함께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농협손해보험의 이해 증진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을 비롯해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까지 폭넓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농가소득 연소득 5,000만원 시대를 위한 농협손해보험의 필요성과 역할 등 상생 발전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김미자 총국장은 "이번 전략회의에 참석한 챌린저들이 '마케터리더'로 노력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챌린저는 2016년 연도 대상 수상자들이 멘토로, 열정과 도전의식이 뛰어나고 실적이 우수한 마케터리더로 전국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멘토로 선정해 2017년 연도대상 도전 등 최우수 직원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인재용 기자

### 전북중기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전북중소기업청은 오는 20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및 사업비 정산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업비 부당집행 및 환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이 계획한 기술개발 목표를 개발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교육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아, R&D 사업 신규 선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교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교육내용은 사업비 사용기준 및 증

빙방법, 사용요령, 협약변경 및 기술개발 목표달성 방법 등 사업비 집행에 포함된 기술개발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내용이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불인정 및 환수사례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알기 쉬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택 청장은 "어렵게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회계 규정 및 사업비 집행 방법을 몰라, 나중에 불인정으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기업들이 교육에 참석해 국가 R&D 사업비 집행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 개별근로관계법·인사 실무 교육 실시

전북농협은 16일 지역본부 상생관에 서 관내 농·축협 인사노무 담당자 및 시군지부 책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개별근로관계법 및 인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앙본부의 노동법 일반, 근로계약, 비정규직 노동법 등 개별근로관계법 주요내용과 채용, 승진

등 농축협 인사실무에 대한 강의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접 집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인사실무 어려움 해소는 물론 실무사례 해석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인재용 기자

국토문의 288-9700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